

## 진취적인 첫걸음, 성지에서 내딛다

이름: 김예은

근무기구 및 부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팔레스타인 사무소 성과관리/데이터 분석 부서 (Monitoring and Evaluation/ Accountability and Analysis Unit)

직위: 성과관리/환경 (Monitoring and Evaluation/Environment) UNV

지원경로: 유엔봉사단 로스터를 통한 개별 연락

근무기간: 2018.12 -

들어가며

2018년 12월부터 시작한 유엔 봉사단원으로서의 생활이 이달 말(2020년 11월)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나는 동 사무소에서 운영(Operations) 직무 단기 컨설턴트로 일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늘 조언을 아끼지 않는 동료들과 서강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교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머나먼 타지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내 삶의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지금도 이 길을 향한 꿈을 품고, 도전을 망설이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꿈을 접어둔 막학기생,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

우리 세대를 소위 '반기문 키즈'라고 하던가.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은 다양한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기구의 위상과 맞물려 내게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심어주었다. 이로 인해 나는 경제학과에 진학했고, 신입생 때부터 외교부가 주관하는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석하며 내 진로를 고민했다. 학부시절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으로 태국에 다녀왔고, 그 외에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제개발 관련 프로그램 모집, 국제기구 주관 프로그램에 수없이 지원한 기억이 난다.

연이은 탈락과 졸업준비에 급급해 잠시 접어두었던 국제기구를 향한 꿈은 여의도 소재 한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마지막 학기에 다시 나를 찾아왔다. 2017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모집하는 대학생 유엔봉사단(UNV)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었는데, 당시 최종 선발과정에서 등록해둔 내 프로필이 UNV 로스터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마침 적당한 후보를 찾지 못한 채 이 프로필을 확인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팔레스타인 사무소 측에서는 내게 면접 제안 이메일을 보냈고 나는 탈락의 고배를 마신지 일 년 만에 새로운 기회를 얻어 면접을 치렀다.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직위인지도 모른 채 기대 없이 참석한 면접에서는 의외의 성과를 거둬 예루살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하기 위해 이스라엘 비자를 받는 이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 이-팔 분쟁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파견을 앞두고 급히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세계의 종교·정치·문화·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주제이기에 쉽지 않았다. 나는 간신히 내가 일하게 될 동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역이고,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는 사실 정도를 이해했을 뿐이었다. 이는 주권이 없는 나라에 대해 이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지식이었고,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첫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고서야 내 체험은 비로소 시작됐다.

내가 근무한 사무소의 경우, 팔레스타인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가사무소' 자격이 없다. 이는 우리 사무소가 각 국가의 분담금에서 산정되는 운영비를 받을 수 없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국민 자격으로 FAO 사무소에 고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유엔 산하 기구들은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UNDP/PAPP)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직원들이 휴가를 쓰는 12월에 도착한 탓에,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현지 직원들로 가득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직무와 역할조차 불분명한 첫 달, 자기들끼리 아랍어로 대화하는 현지직원들 사이에 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외롭게만 보낼 수는 없었기에 나는 그 시간을 현지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며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로 삼았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은 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주었고 나는 그 어떤 매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귀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듣고 배운 것들은, 2년간 모니터 앞에서 근무하는 내가 각 숫자와 보고서 뒤에 있는 현실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진취적으로 일한다는 것

외교부에서 파견하는 청년 봉사단원(UN Youth Volunteer)들은 파견 이전 유엔봉사단(UNV) 본부가 있는 독일 본에서 예비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진취적, 주도적인 태도로 임하라는 말이었다. 한국,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인 동료들과 함께 이 교육을 받을 때는 '여기에 진취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딴?'라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눈을 반짝이며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 열의 없는 사람은 없어보였다.

그러나 막상 파견되어 일을 시작하자, 사무소의 구조조차 낯선 나를 붙잡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도와줄 사람은 없었고, 진취적으로 수행할 '일'을 아는 것조차 어려웠다. 유엔은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체로 경력이 있는 경력직 혹은 전문가들을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친절히 기초부터 알려줄 사람이 없다. 또, 공채로 동시에 많은 신입사원이 입사하는 한국의 대기업과 달리 각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주도적으로 본인의 위치를 확보하고 계발해야한다. 아마 이 때문에 진취적인 태도를 그토록 강조한 것이었겠지만, 말로 듣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다행히 나는 인사팀의 배려로 사무소 내 각 직무별 담당직원과 짧은 면담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동료들과 얼굴을 익힘과 동시에 사무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가자지구 담당관이 된 전임자를 만나 내 업무에 대해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기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와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실무와 비교하며 업무능력을 쌓을 수 있었다. 또,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계속 표현한 결과, 상사의 소개로 이탈리아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성과관리/평가 교육에 참가할 수 있었다.

내가 핵심적으로 수행했던 업무는 주로 각 사업(project)이 목표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각 사업이 기구/사무소가 목표한 가치 체계(framework)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구조모형(logframe)에서 상위 목표와 그에 따른 하위 목표, 그리고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를 이해하고 설정,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관련 업무를 손에 익힐 즈음에는 대표님의 제안으로 사무소의 지원자금 내역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사실 이 업무는 M&E와 재정 업무 사이의 일이라 정확히 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홀리듯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얼른 하겠다고 나섰다. 아마 이 때 나서서 나를 증명해내지 않았다면, 내게 운영직 컨설턴트라는 기회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7개월 쯤 접어들자, 대표님은 1년 더 일하는 것을 제안하며 내 계약조건에 대해 물어보셨다. 청년 봉사단은 계약 연장 시 첫 6개월은 외교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나머지 6개월은 사무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대표님은 사무소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하셨다. 계약기간이 길어진 나는 기존에 하던 일만 반복적으로 한다면 더 오랜 기간 머무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기존 직무기술서(ToR) 이상의 일을 하고 싶었고, 상사와 논의 후, 상사와 동일한 포지션의 경제 전문가(Economist)이지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덴마크 동료를 찾아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팀을 이끄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보조할 사람이 필요했고, 마침 나는 그가 하는 업무에 관심이 있었기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격이었다. 그렇게 나는 M&E에서 운영(Operations), 프로젝트(Programme)팀으로 조금씩 내 역할을 확장해나갔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내가 하는 일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올해 초, 남의 일처럼 시작된 코로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도 번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두 가지 면에서 큰 도전을 안겨줬다. 하나는 '업무'였고, 더 큰 문제는 '일상'이었다.

한국인 성지순례객이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간 후, 이스라엘이 외교부와 상의도 없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는 밀도 끝도 없는 인종차별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나를 비롯한 동아시아계 동료들은 길에서, 버스에서, 식당에서, 온 데서 심한 모욕을 당해야만 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기에 피해자는 겨우 일부에 불과했고, 사무소 동료들도 알아주지 않는 서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타지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 지금은 상황도 잠잠해졌고 당황, 분노와 체념, 그 여러 단계를 거쳐 우리도 관찮아졌지만,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배타성이 얼마나 위험한 형태를 띠 수 있는지를 확인했고, 세계시민의식과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한편 사무소에서는 통근의 (불)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하루 확진자가 급격히 늘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부는 각각 봉쇄령을 시행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애썼다. 결국 우리 사무소는 최소 인원(운전사, 관리인, 경비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근무 중이다. 애초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사람들에게는 만나서 할 회의를 화상 회의로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생겼을 뿐이다. 하지만 수혜자들을 위한 개발 사업,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사무소에선 식량안보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조사를 급하게 기획했고, 우리들은 각자의 집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으로 주간조사를 실시해나갔다. 이 조사는 농업, 어업, 목축업자들, 그리고 각종 협동조합,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각 주마다 일어나는 농산물 가격 변화, 시장 동향, 소비자의 식량소비지수(FCS)를 파악해 농산업 관련 부처와 기구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설문은 현지 직원들이 담당했고, 나는 조사대상 표본을 만들고, 조사 후 일차로 데이터를 가공/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시작하게 된 이 업무는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였다. 조사관들에게 받은 데이터에는 저장해둔 식량이 부족해져 간다는 응답이 잇따랐고,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다는 사람도 많았다. 또, 시장이 문을 닫아 판매가 어려워진 생산업자들은 유제품을 보관하지 못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고, 폭염이 지나간 주에는 작물이 죽었다는 중복된 응답이 수도 없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날도 있었지만, 중복되는 응답에 덤덤해지기도 했다.

그렇게 조금씩 업무에 지쳐갈 때쯤, 이 주간보고서에서 문제 상황을 확인한 팔레스타인 농림부가 농부들에게 묘목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보고서를 읽었다. 단지 이 조사만이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정책 조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의 권위에 놀랐고, 이런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어떤 정부가 내 손을 거쳐 간 보고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참  
멋지지 않은가. 사소해 보이는 업무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을 띠는 지  
확인하고 나니, 다른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인이 집에 갇혀있던 시기, 감사한 분들의 노력으로 각국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내 한국인 선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비단 위에서  
언급한 인종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솔직한  
대화과 조언이 이어지는 장이었다. 또한, FAO 내 한국인 직원들 간 네트워크 또한  
추가적으로 형성돼, 컨설턴트 시험과 면접을 앞두고 선배직원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그것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또, 예루살렘에서의 첫 날부터 이미 각 기구에 자리 잡은 한국인 직원들은 나를  
든든히 챙겨주며 기꺼이 멘토가 되어줬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김동기 전  
소장님과 외교부 직원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지난 2년을 무탈히 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지에서 더욱 챙기고 이끌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런 따뜻한 관심을 이어받아 나 역시 올해 파견된 한국인 청년 UNV들을 위한  
워크샵에 참가하고, UNV로서의 생활을 담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이 수기를 덧붙이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좁은 문이라고들 말하는 국제기구지만, 한국 정부는 발 디딜 틈을 열어주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UNV(대학생, 청년, 전문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KMCO),  
초급전문가(JPO) 등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OASIS 프로그램, 중남미기구  
인턴십 등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면 분야별로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구에서는 KOICA 에 사업을 승인 받기 위해 분주한 등 공여국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요즘이다. 비교적 한국인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어렵다고 도전하지 않는 자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수없이 탈락한 지원서 중 한 장이  
기회가 되어 돌아온 나의 경험을 읽고 누군가가 용기를 낼 수 있기 바라며. /끝/



금요일마다 함께 아침을 먹는 직원들이 재택근무 중 화상 회식을 하는 모습



현장방문 당시 수혜농가에서



덴마크 상사 생일파티. FAO 외국인 동료들과 함께



내가 주도한 세계 식량의 날 2019 팻력. 각 직원이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어옴.



한국인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매 설날과 추석마다 기념함. 윷놀이 하는 모습(좌) 만두 빚는 모습(우)

